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지역 의료기관 잇고 중증 진료 강화

조재호 병원장, 경영 비전 공유
권역응급의료센터 고도화 추진
강원대병원 등과 당직 정보 공유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 구축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려 심화되는 지역 의료 붕괴와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서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강원 지역에서 상생 기반의 네트워크와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한 '지역 완결형 의료 체계'를 구축한다.

한림의료원은 14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지난 9월 취임한 조재호 제23대 병원장의 경영 비전과 주요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재호 병원장과 이재준 한림대의료원장(연구원장)을 비롯해 기획실장, 행정원장, 간호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해 강원 지역이 직면한 의료 환경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미래 발전 전략을 알렸다.

조재호 병원장은 강원 지역 의료라고 있는 지리적·인구학적 한계부터 짚었다. 강원도는 넓은 면적과 산악 지형으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빠르



14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조재호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장이 발표하고 있다. /한림의료원

게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병원 도착률이 낮은 취약성을 안고 있다. 조 원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 병원이 모든 진료 기능을 무리하게 확대해 수용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역 완결형 의료의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이 책임질 수 있는 환자를 최대한 치료하고 더 고난도 역량이 필요한 질환은 잘하는 병원으로 신속하게 연계해야 한다"며 "의료기관들이 각자 잘하는 역

할을 분담하고 네트워크로 연결해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지역 완결형 의료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춘천성심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고도화, 뇌신경 질환 특화, 근골격계 질환 전문화라는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한다. 춘천성심병원은 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지역 응급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24시간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를 유지해 왔다.

향후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중증의료센터로 재탄생시키고, 홍천군과의 뇌신경 건강 사업 및 원격 협진 등을 통해 예방부터 응급 치료, 재활, 퇴원 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유기적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내 의료기관과의 상생도 구체화한다. 춘천성심병원은 강원대병원 등 지역 병원들과 소아 응급 당직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응급 환자를 수용하는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다. 진료 역량 대비에는 독보적인 첨단 연구 성과가 자리 잡고 있다. 춘천성심병원은 2025년 4월 강원도 최초로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획득하며 지방 대학병원의 연구 한계를 뛰어넘었다.

간담회에서 이재준 연구원장은 범부처 과제로 자체 개발해 임상 실증까지 완료한 '뇌출혈 AI 비대면 협진 플랫폼'을 소개했다. 이 시스템은 의료 소외 지역 병원에서 환자의 뇌 CT 영상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면 전자의무기록(EMR) 연동형 AI 알고리즘이 뇌출혈 유무, 출혈량, 위치를 실시간 판독하여 자동 진단서를 생성한다. 해당 내용을 거점 병원 전문의에게 즉시

알람을 보내 비대면 협진이 가능하다.

실증 결과, 강원 권역 22명, 제주 권역 12명 등 총 34명의 중증 뇌출혈 환자 생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으며 현재 미국 보스턴 메사추세츠 대학교 등과 협력하는 등 글로벌 현지 실증으로 확산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춘천성심병원은 미래 의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연구 인프라를 한층 강화한다. 첨단 융합 기술과 뇌과학을 다루는 뉴프론티어리서치연구소, 근육생물학과 인공관절을 연구하는 한림골격노화연구소, 마이크로바이옴과 멀티오믹스 진단을 연구하는 한림소화기연구소와 함께,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보유한 미세 생리시스템연구소는 누리호에 바이오 큐브위성을 실어 발사해 우주생명공학 영역까지 연구 지평을 확장하고 있다.

조 원장은 "지역에서 꼭 필요한 필수 의료와 중증 질환에 철저히 집중하고, 우수한 연구력과 상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든든한 의료 안전망으로 도약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베트남 국립대와 협력 셀트리온, 美 대형 PBM 추가 등재 임박

베트남 HUS 워크숍서 기초연설
공동연구 등 포괄적 MOU 체결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베트남을 대표하는 바이오 명문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는 지난 10일 베트남 국립대 하노이 자연과학대학교(HUS) 생명과학부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 워크숍에서 기초연설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날 베트남 자회사 VO S 디스커버리(Discovery)는 HUS가 주도하는 생명공학 협력 네트워크와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HUS는 베트남국립대학교(VNU) 소속의 대표적인 기초과학 교육·연구기관이다. 1956년 설립된 생명과학부는 70년간 수많은 과학자와 우수 연구 인력을 배출했으며, 이번 기념식에서 베트남 총리 표창을 받았다. 행사에는 정부 관계자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병원, 기업 등이 참석해 대학의 연구 성과를 의료와 산업으로 연결하는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유종만 대표는 기초연설에서 오가노이



유종만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대표가 지난 10일 베트남 국립대 하노이 자연과학대학교(HUS) 생명과학부 창립 70주년 기념 국제 워크숍에서 기초연설을 하고 있다.

드 기술이 신약 평가를 넘어 환자 치료를 위한 재생치료제로 발전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대표 사례인 장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아톰-C(ATORM-C)'는 환자 본인의 장 조직에서 얻은 성체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다. 내시경으로 장 궤양 부위에 투여해 손상된 점막의 재생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유 대표는 연구용 조직 모델이 실제 환자에게 투여되는 치료제로 이어지는 사례를 통해 오가노이드 기술의 산업적 확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베트남 자회사 V

OSDiscovery가 참여한 포괄적 MOU는 인재 양성, 학술 교류, 연구시설·데이터 공유, 시장 수요에 기반한 공동연구와 국제 협력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베트남의 주요 학술기관이 주도하는 네트워크에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현지 연구자와 의료기관·기업을 잇는 공동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산업화 경험을 현지 연구 생태계에 접목하고 제품과 서비스 개발로 연결할 기회도 넓어질 전망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후속 제품 매출 확대 기대

셀트리온이 미국 대형 처방약급여관리 업체(PBM)와 고수의 후속 제품군의 처방집 등재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며 4분기 내 추가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3분기 매출액 1조 5000억원, 영업이익 5100억원의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한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기존 제품군의 견조한 판매 성과와 후속 제품군의 환급 기반 확대를 바탕으로 4분기에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미국 제약 시장에서 PBM 관할 처방집 등재는 제품 처방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선호의약품 등재가 이뤄질 경우 환급 커버리지 확보를 기반으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높아져 처방 가속화로 이어지게 된다.

셀트리온은 후속 제품군의 대형 PBM

등재 계약에 잇달아 성공하며 미국 보험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지난해 10월 미국에 출시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엡토즈마'는 미국 3대 PBM의 사보함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출시 초기부터 현지 보험 시장의 절반이 넘는 환급 커버리지를 확보했다. 이달 초 미국에 출시된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 '옵리클로' 역시 대형 PBM인 '옵탐'(Optum)의 사보함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됐다.

셀트리온 미국 법인은 기존 제품군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구축한 의료기관 및 유통 채널과의 네트워크를 신규 제품군의 시장 진입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존 제품군의 안정적인 판매 성과에 더해 고수의 후속 제품군의 처방 확대 및 대형 PBM 등재 계약 추가도 가시화되면서 미국 시장 내 성장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광동제약, 침향환 논란에 광고 관리 강화

판매처 광고 표현 개선 취지 공감

광동제약이 최근 제기된 침향환 이슈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향후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계획이며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 엿보였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 및 제약·유통 업계를 중심으로 침향환의 과대 광고 논란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침향환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임에도 일부 판매처가 효능·효과를 강조하며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식품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제품에 포함된 실제 침

향 원료의 함량이나 원가에 비해 소비자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로 책정되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광동제약은 침향환의 가격 구조에 대해 "여러가지 주·부재료 중 특정 성분의 함량과 원자재값 추산만으로 판매가나 이익 규모를 가능하게 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완제품 생산까지는 원료·부재료 혼합 비율뿐만 아니라 품질선별, 정밀제조, 안전성 검증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철저한 품질관리와 노하우가 수반되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호순 전 부회장은 "생약재의 특성상 같은 재료라도 품질에는 큰 차이가 난다"면서 "원료별 취급 노하우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인벤티지랩, 1년 지속형 주사제 美 특허 등록

후속 사업화 논의 구체화

약물전달기술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동물용 화학적 거세제에 적용되는 12개월 지속형 펩타이드 주사제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기업과 공동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후기 개발과 제조생산기술 이전(Tech Transfer)을 포함한 후속 사

업화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반려동물의 비수술적 중성화 시장에서 GnRH 작용제 기반 제품을 개발·상용화해온 글로벌 동물용의약품 기업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파트너사는 동일 성분 제품의 개발·허가·판매 경험과 글로벌 사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향후 공동개발 제품의 상업화 과정에서 기존 개발 경험과 시장 접근성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특허 등록 결정

은 인벤티지랩이 축적해 온 장기지속형 펩타이드 제형 기술을 12개월 지속형 영역으로 확장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국 내 권리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펩타이드 후보물질을 대상으로 축적한 제형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3개월·6개월·12개월 등 초장기 지속형 제형으로 플랫폼 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벤티지랩에 따르면 현재 파트너사와 본격적인 상업화 제조생산 사이트 확정 및 IVL-DrugFluidic 제조 플랫폼 기술이전(Tech Transfer)을 포함한 사업화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